

한중 감각형용사 파생법 연구

- 색채형용사, 미각형용사를 중심으로 -

곽 일 성 (郭一誠)*

〈한국어초록〉

인간은 자신이 느낀 감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어휘적, 문법적, 수사적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중 어휘적 수단으로 파생이나 합성, 어음교체 등 조어법(word formation)에 의하여 수많은 비슷하면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를 지닌 유의어 낱말들을 형성하여 경우와 상황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한다.

파생법은 한중 감각형용사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각의 객관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에 접두사(prefix)나 접미사(suffix)를 첨가하여 많은 파생어들을 형성시키고, 이 파생어들은 감각의 구체적인 상태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며 미세한 의미차이로 서로 구별된다. 접사의 첨가는 주로 정도성 의미를 부여하고, 그 외에 [쾌감][밝음][맑음][거칠][무서움] 등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중 미각형용사와 색채형용사 파생어의 형태구조 및 의미기능에 대해 분석, 비교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2장에서 한중 감각형용사의 낱말구조 유형 및 형태소 유형을 정리하고 중국어의 접사와 준접사(准詞綴) 개념 및 설정 기준에 대해 검토했다. 3장에서는 파생어를 접두사에 의한 파생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으로 나누고 각 접사들의 분포양상 및 의미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런 작업을 통해 한중 감각형용사 파생 접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각형용사 유의어 어군의 의미 차이를 밝혀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주제어 : 한중 감각형용사, 미각형용사, 색채형용사, 접두사, 접미사, 준접사, 형태구조, 분포양상, 의미 기능.

* 복단대학교 한국어학과

1. 들어가기

감각(sense)은 외부 또는 내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의식현상이며 신체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인간 자체와 외계 자극을 서로 연결해 준다. 인간이 자신의 감각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낱말(word)을 감각어라고 할 수 있고 그중 대부분이 형용사이며 이들을 감각형용사¹⁾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감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언어란 중간세계²⁾를 통하여 감지된 객관적 감각을 능동적, 주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즉 인간이 감각을 표현할 때 그 감각의 객관적 속성뿐만 아니라 정도가 어떠냐 기호(嗜好)에 맞느냐 등 주관적인 의미를 가미(加味)하여 표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사적 방법 외에 어휘적 방법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즉 파생이나 합성, 어음교체 등 조어법(word formation)에 의하여 수많은 비슷하면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를 지닌 유의어 어군을 형성하여 경우와 상황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한다. 음운 체계나 형태소 결합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한중 두 언어는 감각형용사의 생성에도 저마다 특색을 지니기 마련이다.

한중 감각형용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감각 범주, 형태구조 및 의미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한중 감각형용

1) 일부 학자는 한국어 형용사가 형태(form)나 기능(function)의 측면에서 동사와 비슷하게 어미를 취하여 문장에서 활용하고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특징으로 형용사를 동사의 하위 부류인 상태성 동사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권주예(1982), 정재윤(1989) 등 연구에서는 ‘감각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형용사가 동사와 달리 주로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는 의미적(meaning) 특징, 또 중국어에서나 한국어에서나 형용사를 독자적인 하나의 품사로 기술하는 것이 주류이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감각형용사’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2) Trier에 의하면, 외부의 세계는 인간에게 언어를 매개로 해서, 보다 정확하게는 “언어적 중간세계”를 경유해서 부여되는 것이다. 허발(1976 : 31) 참조.

사를 연결하여 대조적으로 연구하는 성과물은 김찬화(2005), 진애려(2007), 徐銀春(2005), 金容勛(2009), 鄭鳳然(2000) 등 몇 편의 논문밖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중 대부분이 기본 감각형용사의 개념의미나 전이 의미를 대조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미각형용사와 색채형용사의 파생어 형태구조를 분석, 비교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접사의 설정 기준, 분포양상 및 의미 기능을 잘 밝혀내야 한중 감각형용사 파생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각형용사 유의어 어군의 의미·어감적 시차성(示差性)을 밝혀내는 의미 연구에도 꼭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될 거라 믿는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형태소 결합법(파생법 또한 합성법), 어음교체법 등 조어법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중 두 언어 단어형성의 전체적인 특징을 제시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한국어 감각형용사는 주로 국립국어연구원 편『표준국어대사전』과 신기철·신용철 편『새 우리말 큰 사전』에서, 중국어 감각형용사는 주로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편『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서 수집했다. 그러나『표준국어대사전』과『새 우리말 큰 사전』에 수록된 어휘 총수가 각각 50여만 개와 30여만 개에 이르는 데에 비해『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 수록된 어휘수는 고작 6만 5천개에 불과하며 ‘恬滋滋, 紅扑扑, 黃澄澄’와 같은 널리 쓰이는 낱말조차 수록돼 있지 않는다. 이런 부족점을 보완하기 위해 東方瀛 편『中華現代漢語双序大辭典』, 呂叔湘 편『現代漢語八百詞』, 張拱貴·王聚元 편『漢語疊音詞詞典』 그리고 온라인 중국어사전³⁾ 등 여러 사전을 함께 참조하기로 한다⁴⁾.

위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우선 사전에 수록된 것에 한하다.

3) <http://www.zdic.net>.

4) 중국어는 글자, 단어와 구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사전마다 표제어를 선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듯 하다.

‘희긱희긱하다, 파스구러하다, 臭臭刮刮, 墨墨黑, 雪雪白’ 등처럼 어떤 작가에 의해 사용되거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 낱말들이 있는데 사전에 수록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⁵⁾. 그런데 사전에 수록된다고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다. 첫째, ‘감미(甘味)롭다, 감미(甘美)하다, 감렬(甘冽)하다, 신랄(辛辣)하다, 청담(淸淡)하다, 삼삼(澹澹)하다’ 등 한자어들은 형태·의미적으로 고유어와 확연히 구별되는 이질적(異質的)인 특징을 많이 지니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쓰겁다, 뽀다, 시겁다’ 등 방언 낱말과 ‘덜큼하다, 새지근하다’ 등 북한어가 표준어가 아니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알찌근하다/얼찌근하다’, ‘해반들하다/희번들하다’ 등처럼 본말(원형식) ‘알짝지근하다/얼찍지근하다’, ‘해반드르르하다/희번드르르하다’의 일부 음운을 축약하거나 탈락하여 형성된 준말은 본말과 같은 의미로 공존하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낱말 수집을 통해 한국어 미각형용사 73개와 색채형용사 334개, 중국어 미각형용사 37개와 색채형용사 206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⁶⁾.

[도표 1] 한중 색채형용사, 미각형용사 낱말발

감각 유형	하위분류	낱말	소계
미각/味覺	‘달다’ 계열	달다, 다달하다, 다디달다, 달콤/달금/달콤/달콤/들콤-하다, 달보드레/들부드레-하다, 달크무레하다, 달짝지근/달착지근/들찍지근/들척지근-하다	15

5) ㄱ. 이 희긱희긱한 머리칼뽀 (김소월 한역시 『봄(春望)』)

파스구러한 비단 창 (김소월 한역시 『밤 까마귀(烏夜啼)』)

ㄴ. 臭臭刮刮, 墨墨黑, 雪雪白...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

6) 파생법 외에 장차 합성법과 어음교체법 등 조어법도 같이 고찰해볼 계획이므로 여기서 파생어만 수집한 것이 아니고 단일어, 합성어 등을 포함한 전체 낱말발을 정리한 것이다.

	시각/視覺	‘話’ 系列	話, 話不唧兒, 話不絲, 話爽, 話津津, 話絲絲, 話天沃, 話滋滋, 話膩膩, 話趣味(話來味), 話蜜蜜, 蜜話, 蜜蜜話, 甘話, 話甘, 話美, 香話	17
		‘시다’ 계열	시다, 시디시다, 시금/시굼/시름/시름/새금/새굼/새름/새름-하다, 시금시금/시굼시굼/시름시름/시름시름/새금새금/새굼새금/새름새금/새름새금-하다, 시그무레/시크무레/새그무레/새크무레-하다, 시척지근/새척지근-하다, 시/새-지근하다	26
		‘酸’ 系列	酸, 酸嘍嘍(酸唧唧/酸對齊齊), 酸溜溜	3
		‘짜다’ 계열	짜다, 짜디짜다, 짹짹/쩍쩍/쩍쩍-하다, 짹째/쩍째-하다, 짹짜/쩍조/쩍찌-름하다, 간간짹짹/건건쩍쩍-하다	12
		‘咸’ 系列	咸, 咸津津(咸浸浸), 咸絲絲, 咸溜溜	4
		쓰다	쓰다, 쓰디쓰다, 검쓰다, 씹씹/씹씹-하다, 씹째/씹째-하다, 씹싸름/씹싸름-하다,	9
		‘苦’ 系列	苦, 苦不唧兒, 苦涔涔, 苦津津, 苦絲絲, 苦溜溜, 苦恢恢(苦厭厭/苦艷艷/苦淹淹)	7
		‘맵다’ 계열	맵다, 맵디맵다, 맵몹/매몹-하다, 맵몹/매몹-하다, 맵싸하다	7
		‘辣’ 系列	辣, 辣不唧兒, 辣乎乎(辣忽忽), 辣蒿蒿	4
		‘뺨다’ 계열	뺨다, 떠름하다, 떨떠름하다, 뺨디뺨다	4
		‘澀’ 系列	澀, 澀刺刺	2
		합계	한국어 73개/ 중국어 37개	
	시각/視覺	‘붉다’ 계열	붉다, 엷붉다, 짙붉다, 붉디붉다, 발가발강/벌거벌결/빨가빨강-다, 발긋발긋/불긋불긋/벌긋벌긋/불긋불긋/빨긋빨긋/빨긋빨긋/빨긋빨긋-하다, 발강/벌결/빨강/빨결-다, 발그대대/불그대대/벌그대대/불그대대/빨그대대/빨그대대-하다, 발그댕댕/불그댕댕/벌그댕댕/불그댕댕/빨그댕댕/빨그댕댕-하다, 발/불/벌/빨/빨-그레하다, 발/불/벌/불/빨/빨/빨-그름하다, 발/불/벌/불-그무레하다, 발그속속/불그속속/벌그속속/불그속속-하다, 발/불/벌/불/빨/빨/빨-그스레하다, 발/불/벌/불/빨/빨/빨-그스름하다, 발그족족/불그족족/벌그족족/불그족족/빨그족족/빨그족족/빨그족족/빨그족족-하다, 발/불/벌/불/빨/빨/빨/빨-긋하다, 새(색)빨강다, 시(식)빨결다	89
		‘紅’ 系列	紅, 紅潤, 鮮紅, 殷紅, 嫣紅, 艷紅, 火紅, 通紅, 丹紅, 血紅, 大紅, 酡紅, 猩紅, 酡紅, 桃紅, 杏紅, 粉紅, 紅彤彤, 紅通通, 紅丹丹, 紅艷艷, 紅媽媽, 紅殷殷, 紅澄澄, 紅靨靨, 紅燦燦, 紅嘟嘟, 紅亮亮, 紅閃閃, 紅鮮鮮, 紅血血, 紅潤潤, 紅不棱登(楞登/楞登), …	33
		‘누르다’ 계열	누르다, 노르다, 누르디누르다, 눌눌/눌눌-하다, 노라노랑/누러누렁-다, 노름노름/누름누름-하다, 노릇노릇/누릇누릇-하다, 누르통통하다, 노랑/누렁-다, 너랑/뉘렁-다, 노릇/누릇-하다, 노름/누름-	43

시각/視覺		하다, 놀/놀-면하다, 노르/누르-게하다, 노리/누리-끼리하다, 노르/누르-끄레하다, 노르대대/누르데데-하다, 노르뎡뎡/누르뎡뎡/누르딩딩-하다, 노르/누르-무레하다, 노르/누르-스레하다, 노르/누르-스름하다, 노르죽죽/누르죽죽-하다 새(새)노랗다, 시(시)누렇다, ...	
	‘黃’ 系列	黃, 蒼黃, 鵝黃, 金黃, 昏黃, 暈黃, 黃澄澄(黃澄澄), 黃燦燦, 黃暈暈, 黃沌沌, 黃忽忽(黃乎乎), 黃晶晶, 黃蜡蜡, 黃兮兮, 黃松松, 黃怏怏, 黃艷艷, 黃油油, 黃生生, 黃溜溜, 黃巴巴	21
	‘푸르다’ 계열	푸르다, 옅푸르다, 짙푸르다, 푸르디푸르다, 파랗파랗/푸릇푸릇-하다, 파랗파랗/퍼러퍼렇-다, 파랑/파르랑/퍼렇/푸렇-다, 파랗/퍼랗/푸랗-하다, 파름하다, 파르/포르/퍼르/푸르-게하다, 파르/퍼르/푸르-스름하다, 파르/퍼르/푸르-스레하다, 파르대대/포르대대/퍼르데데/푸르데데-하다, 파르당당/파르뎡뎡/포르뎡뎡/퍼르뎡뎡/푸르딩딩/푸르뎡뎡-하다, 파르/포르/퍼르/푸르-무레하다, 파르속속/푸르속속하다, 파르죽죽/포르죽죽/퍼르죽죽/푸르죽죽-하다, 푸르통통하다, 시푸르다, 새(새)파랗다, 시(시)퍼렇다, 시푸르뎡뎡하다, 시푸르죽죽하다	53
	‘藍, 綠’ 系列	綠, 碧綠, 翠綠, 黛綠, 葱綠, 慘綠, 柔綠, 墨綠, 澄綠, 橄欖綠, 草綠, 嬌綠, 稚綠, 鮮綠, 豆綠, 黑綠, 綠莹莹, 綠油油, 綠茵茵, 綠生生, 綠茸茸, 綠葱葱, 綠沉沉, 綠森森, 綠盈盈, 綠兮兮 藍, 湛藍, 靛藍, 瓦藍, 寶藍, 蔚藍, 碧藍, 海藍, 柔藍, 藏藍, 黛藍, 翠藍, 烏藍, 天藍, 藍莹莹, 藍汪汪, 藍幽幽(藍悠悠), 藍兮兮, 藍湛湛	45
	‘검다’ 계열	검/검/검/검-다, 검디검다, 가뭇가뭇/거뭇거뭇/까뭇까뭇/꺼뭇꺼뭇-하다, 감승감승/검승검승-하다, 감실감실/검실검실-하다, 감작감작/검적검적/감작감작/검적검적-하다, 가마가맣다, 가마/거머/까마/꺼머-무트름하다, 가마반/거머번/까마반/꺼머번-드르하다, 가마반/거머번/까마반/꺼머번-지르하다, 가/거/까/꺼-무칙칙하다, 검측/검칙하다, 가맣/거맣/까맣/꺼맣-다, 가/거/까/꺼-뭇하다, 가/거/까/꺼-무끄름하다, 가/거/까/꺼-무레하다, 가/거/까/꺼-무스레하다, 가/거/까/꺼-무스름하다, 가/거/까/꺼-무속속하다, 가무죽죽/거무죽죽/까무죽죽/꺼무죽죽-하다, 가마잡잡/가무잡잡/거무잡잡/까무잡잡/꺼무잡잡-하다, 가무충충/거머충충/거무충충/까무충충/꺼무충충-하다, 가무대대/거무데데/까무대대/거무데데-하다, 가무뎡뎡/거무뎡뎡/까무뎡뎡/거무뎡뎡-하다, 가무되되/거무되되/거무되되/까무되되/거무되되-하다, 감승/검승-하다, 새(새)까맣다, 새가맣다, 시꺼맣다, 시커맣다	97
	‘黑’ 系列	黑, 烏黑, 黝黑, 黧黑(黎黑, 曬黑), 漆黑, 魑黑, 閨黑, 昏黑, 墨黑, 嘿黑, 烏漆墨黑, 蒼黑, 黯黑, 汚黑, 突黑, 夥黑, 皎黑, 晦黑, 黧黑, 淤黑, 黑黢, 黑亮, 黑郁 黑洞洞, 黑糊糊(黑忽忽/黑乎乎), 黑兮兮, 黑魑魑, 黑黝黝, 黑森	71

	森, 黑津津(黑浸浸), 黑槎槎, 黑植植, 黑扑扑, 黑滋滋, 黑靛靛, 黑麻麻, 麻麻黑, 黑騰騰, 黑簇簇, 黑溜溜, 黑頓頓, 黑穆穆(生生), 黑壓壓(鴉鴉), 黑沉沉, 黑漫漫, 黑越越, 黑漆漆, 黑油油, 黑凜凜, 黑幢幢, 黑蒙蒙, 黑黢黢, 黑烏烏, 烏黑黑, 黑茫茫, 黑郁郁, 黑鬢鬢, 黑汚汚, 黑幽幽, 黑斜斜, 黑茸茸, 黑氍毹, 黑巴巴, 黑黢黢, 黑蒼蒼, 黑亮亮, 黑光光, 黑咕嚕多(黑咕嚕冬/黑咕嚕哆), 黑不楞敦(黑不棱登), 黑不溜, 黑不溜秋(球/鰕)	
‘회다’ 계열	회다, 회디회다, 회끗회끗/해끗해끗-하다, 회뜩회뜩/해뜩해뜩-하다, 해/회-말다, 회물다, 회물그레하다, 해말강/회말강-다, 해말쑥/회말쑥-하다, 해말끔/회말끔-하다, 하야말강/허여말강-다, 하야말쑥/허여말쑥-하다, 해반/회반-드르르하다, 해반/회반-주그레하다, 해반/회반-지르르하다, 하얏/허얏-다, 회/해-긋하다, 회/해-뜯하다, 회/해-긋하다, 회/해-끄무레하다, 하야/허여-스름하다, 해/회-끄스름하다, 해/회-읍스름하다, 하야/허여-스레하다, 해/회-읍스레하다, 해/회-우스름하다, 해/회-쑥하다, 새(셋)하얏다, 시히얏다	52
‘白’ 系列	白, 白皙, 白淨, 洁白, 煞白, 蒼白, 慘白, 雪白, 皓白, 虛白, 刷白, 純白, 皚白, 白膩, 白潤, 白皚皚, 白茫茫, 白花花, 白生生, 白森森, 白冷冷, 白晃晃, 白蒙蒙, 白燦燦, 白楂楂, 白熾熾, 白乎乎, 白晶晶, 白淨淨, 白厲厲, 白亮亮, 白濛濛(白了了/白寥寥), 白扑扑, 白刷刷, 白瓦瓦, 白不吡咧...	36
합계	한국어 334개/ 중국어 206개	

2. 감각형용사 낱말구조 유형

낱말의 형태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그 낱말을 쪼개어서 소리와 뜻의 최소 결합체인 형태소(形態素, morpheme)⁷⁾를 찾아내고 그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된 낱말은 단일

7) 더 밑으로 분석하면 뜻을 잃어버리는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남기심, 고영근 1987: 43). 형태소는 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형태소(free morpheme)와 의존형태소(bound morphem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립성이 결여한 접사, 조사와 어미 등은 모두 의존형태소에 속한다.

어(simple word),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된 것을 복합어(complex word)라고 한다. 그리고 복합어는 다시 구성 형태의 성격에 따라 어근과 접사의 형태로 결합된 파생어(derived word)와 어근과 어근의 형태로 결합된 합성어(compounding word)로 구분된다(우형식·배도용2009 : 59). 파생어는 다시 접사의 위치에 따라 “헛-과일, 헛-감자, 헛-쌀”처럼 접두사(prefix)에 의한 파생어와 “가위-질, 부채--질, 망치-질”처럼 접미사(suffix)에 의한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감각형용사 파생어의 형태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근(語根, root)과 접사(接辭, affix)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문법 기술에서 어근은 상당한 큰 개념 차이로 드러난다. 이석주·이주행(1997 : 78), 강은국(1987 : 13), 안상철(1998)를 비롯한 전통 한국어 문법에서는 어근에 대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이며 단어의 기본 의미를 나타내는 핵심적 형태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익섭(1975, 2005), 송철의(1992), 김창섭(1996)와 송정근(2007)는 “깨끗-하다, 높직-하다” 중의 ‘깨끗, 높직’처럼 굴절 어미가 바로 결합할 수 없고 독립적인 단어로 파악하기도 힘든 의존형식을 어근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전통문법의 어근 개념은 낱말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최소 형태소를 명확히 제시해주기에 낱말의 형태분석이나 유형 판단에 유용하다. 그래서 본고는 활용여부보다 의미를 더 중심으로 여긴 어근 개념을 채택하기로 한다. 그러면 ‘깨끗-, 높직-’를 확연히 다른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형태소 ‘깨끗’은 공식적으로 더 세분할 수 없고 핵심적인 뜻을

8) 송정근(2007 : 34)에서 “합성어나 파생어의 분석에서 어미가 결합되지 못하고 자립성도 명확하지 않은 단위에 대해 이런 어근 개념이 유용하다”고 했다. 김창섭(1996 : 19)에서 “잠재어도 단어형성만을 위한 요소로서 굴절접사와 연결되지도 못하고 자립형식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어근’과 성격이 같다”고 지적했다.

지니고 있기에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높직’은 다시 ‘높-직’으로 더 세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접사 ‘-직-’을 제외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높-’이야말로 어근의 자격을 가진다⁹⁾.

접사(接辭, affix)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자립성이 없는 접사는 다시 ‘파생접사(派生接辭, derivational affix)’와 ‘굴절접사(屈折接辭, inflectional affix)’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떡-이, 뉘-이, 높 이’의 접미사 ‘-이’처럼 새로운 낱말을 형성하는데 후자는 ‘높-게, 높-지, 높-은’의 ‘-게, -지, -은’처럼 낱말이 아닌 통사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굴절접사’는 한국어의 ‘굴절어미’에 해당하고 중국어의 ‘着、了、過’ 등 허사(虛辭)¹⁰⁾에 해당한 것이다. 본고는 낱말의 내부구조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접사라면 ‘파생접사’만 가리킨다.

어간(語幹, stem)은 ‘높-, 높직하-, 깨끗하-’처럼 굴절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이상 어근, 어간 및 접사는 각각 고유어술어 ‘뿌리’, ‘줄기’와 ‘가지’와 대응된다.

중국어 문법에서도 형태소 유형에 따라 낱말을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¹¹⁾ 두 가지로 나누고 한국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복합어의 하위 부류인 파생어에 대해서는 중국 문법 학계에서 많은 이견을 제기해

9) 송정근(2007: 35~6)에서 ‘높직하다, 거무스름하다, 달콤하다’의 ‘높직, 거무스름, 달콤’을 다시 세분할 수 있는 ‘복합어근’으로 보고 그중 ‘-직-, -(으)스름-, -콤-’을 ‘어근형성요소’라는 술어로 명명했다. 어근형성요소가 새로운 단어가 아닌 어근을 만 들어 내고 또 서로 연이어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접사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어근형성요소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이 확실하고 또 접사가 여러개 연이어 붙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에 이런 새 술어를 사용할 이유가 회의적이다.

10) 일부 중국어 학자는 서양언어학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를 ‘詞綴’라고 부르기도 한다.

11) 중국어 문법에는 형태소 결합에 의해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합성어’가 상위 개념이고 접사에 의한 ‘파생어’와 어근 결합에 의한 ‘복합어’가 그에 포함된 하위 개념이다.

왔다. 파생법의 존립 여부에서 파생 접사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많다. 1950년대 전까지도 중국어에 대한 형태분석이 전혀 학계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많은 학자들이 서양 굴절언어 분석에 잘 적용하는 파생, 접사, 어근 등 개념이 중국어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중 대표적인 논저는 郭紹虞(1934 : 31), 王力(1936 : 49), 廖庶謙(1946 : 137) 등이 있다. 郭紹虞님은 “중국어는 단음절어(單音節語)로서 한 음절이 한 글자이며 일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형태변화가 없다”며 접사, 파생 등 개념을 일축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구소련 언어학을 적극 수용함과 함께 중국어에 대한 형태분석도 활발히 진행하기 시작했다. 瞿秋白(1932)는 최초로 접사(字尾)를 의미적인 것과 통사적인 것으로 양분하고 “性、主義、上的” 등 형태소를 접사로 인정했다. 이후로 접사의 개념이 점점 수용하되 접사의 설정 기준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많다. 呂叔湘(1979), 高名凱(1957 : 94)는 중국어 접사는 어휘적 의미를 갖지 않고 품사 표시 등 문법 기능만 한다고 지적하며 ‘老板, 老百姓’, ‘桌子, 胖子, 瘦子’ 중의 ‘老, 子’처럼 단어의 품사 유형을 명시하거나 변화시키는 것만을 접두사나 접미사로 인정한다.

상술한 좁은 의미의 접사 외에 呂叔湘(1979), 任學良(1981) 등 많은 논저에서는 접사와 어근 사이에 처해 있는 ‘준접사(准詞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준접사란 아직 완전히 접사화되지 않은 형태소들을 가리키며 접사와 비슷하지만 접사에 비하면 의미 내용이 덜 사라지고, 어근에 비하면 그 의미가 또 그리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결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파생력을 가지고 있다. ‘士, 師, 店, 度, 論, 式’ 등 형태소들이 이에 속한다.¹²⁾

접사와 준접사의 개념과 설정 기준이 확연히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12) 이상 중국어 형태론연구사에 대한 논술은 潘文國.叶步青.韓洋(2004 : 64-93)에 참조.

있다. 전자는 접사의 어휘적 의미를 배제하고 품사 유형을 명시하거나 변화시키는 문법 기능만 강조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접사의 어휘적 의미를 인정하되 어근보다 의미가 어느 정도 추상화되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덧붙인다. 어휘적 의미를 부여하느냐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느냐는 기준이 서로 다르나, 접사 혹은 준접사는 자립성이 없어 의존적이어야 하며 낱말을 파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은 비슷하다.

(1) 不_不絲, 不_不唧儿, 兮兮, 不_不楞敦, 不_不溜秋, 黑_不溜秋

(1)의 밑줄 친 ‘不_不絲, 不_不唧儿, 兮兮, 不_不楞敦, 不_不溜秋’는 모두 자립성이 없어 다른 낱말에 붙어 써야 하고, 또 ‘傻_不唧, 蔫_不唧, 滑_不唧’, ‘黑兮兮, 黃兮兮, 白兮兮’처럼 다른 형용사를 파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글자 원래의 뜻이 약화되고 여러 음절이 결합하여 그 전체가 ‘정도가 약하고 기호에 맞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이들을 모두 준접사로 처리할 수 있다¹³⁾.

단음절 낱말이 대부분이었던 고대 중국어가 현대에 와서 쌍음절 낱말이 점점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¹⁴⁾. 이런 변화와 함께 어느 형태소가 독자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약화된 의미로 다른 말에 붙어 쓰는 현상도 점점 많아진다. 이런 언어 현실을 감안하여 본고는 중국어도 접사에 의한 파생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좁은 의미의 접사¹⁵⁾와 넓은 의미의 준접사를 모두 접사로 보기로 한다.

13) 이들 준접사들이 형용사만 파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품사유형을 명시하는 문법 기능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 다만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아 좁은 의미의 접사로 보기 어렵고 준접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4) 呂叔湘(1999: 8~10) 참조.

15) 여기 좁은 의미의 접사란 앞에서 말한 ‘老-, -子’ 등 극히 제한된 것들을 가리킨다.

3. 파생에 의한 낱말 형성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를 첨가하여 파생된 단어를 가리킨다. 洪思滿(1994 : 205)에서 접사의 어휘론적 기능은 ‘파생’과 ‘가의(加義)’ 두 가지로 압축했다. 아래는 접사의 첨가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그들의 분포 양상 및 의미 기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접두사에 의한 파생

접두사에 의한 감각형용사 파생어는 한국어에서만 발견했고 그 수효가 많지 않다. 한국어 접두사는 어휘적 의미만 첨가할 뿐 형용사로서의 의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도표 2] 한국어 색채, 미각형용사의 접두사 분포 양상

접두사	접두사 파생어
검-	검쓰다
새-/셋-, 시-/잇-	새파랗다, 새노랗다, 새빨강다, 새하얗다, 새까맣다, 새카맣다
	셋파랗다, 셋노랗다, 셋빨강다, 셋하얗다, 셋까맣다
	시퍼렇다, 시누렇다, 시뻘깁다, 시허옇다, 시꺼멓다, 시커멓다, 시푸르다, 시푸르뎡뎡하다, 시푸르죽죽하다
	싯퍼렇다, 싯누렇다

접두사 ‘검-’은 미각형용사 ‘쓰다’ 계열에만 존재하고 농도가 높다는 뜻을 부여한다. 이는 ‘검세다, 검질기다’ 등 다른 형용사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접두사 ‘새-/셋-, 시-/잇-’은 색채형용사의 5개 하위 계열어군에 모두 존재하고 색채가 짙어짐을 나타낸다.

송철의(1992 : 110-2)에서 접두사 ‘새-/셋-, 시-/잇-’의 분포에 대해 “‘붉다, 푸르다, 누르다’ 등 단일형태소 색채형용사에는 붙지 않고 ‘X+양

/엇’과 같은 형태론적 구조를 갖는 색채형용사들에만 붙는다”며 “평음-경음-격음(가맏다/까맏다/카맏다, 거맏다/꺼맏다/커맏다)의 대립이 보이는 색채어들중에서 유독 평음형 ‘가맏다, 거맏다’만이 ‘새-/시-’와 결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시푸르다’처럼 단일어 ‘푸르다’와, 또 ‘시푸르땡땡하다, 시푸르죽죽하다’처럼 ‘X+엇/엇’ 구조가 아닌 파생어 ‘푸르땡땡하다, 푸르죽죽하다’와 결합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그런데 ‘새-, 시-’와 자음 ‘ㅅ’이 더 붙은 ‘셋-, 싯-’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견이 많다. 이병근(1986)과 송철의(1992)에서는 ‘새-, 셋-, 시-, 싯-’이 명암과 농담에 따라 별개의 형태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¹⁶⁾ ‘셋-, 싯-’이 결합된 어형이 ‘새-, 시-’가 결합된 어형보다 더 짙은 색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손용주(1997:62)는 “‘새-, 셋-’은 의미상 동일한 말이고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¹⁷⁾”며 “앞가지 ‘셋-’은 새로운 하나의 앞가지로 볼 것이 아니라 ‘새-’에 이은 소리 관계로 /ㅅ/이 끼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앞가지 ‘셋-’을 ‘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본관(1998)에서도 기본적으로 ‘셋-, 싯-’과 ‘새-, 시-’를 구별하기 어렵고¹⁸⁾ 공시적으로 이들이 농도의 차이를 갖는 다른 파생접미사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⁹⁾ 또한 분포 양상을 비교해보면, ‘시-/새-’가 ‘시퍼렇다:새파랗다, 시누렇다:새노랗다, 시뻘꺾다:새빨꺾다, 시허

16) ‘새-, 셋-, 시-, 싯-’의 의미 관계. 송정근(2007:73) 참조

	명(明)	암(暗)
농(濃)	셋-	싯-
담(淡)	새-	시-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셋빨꺾다’와 ‘새빨꺾다’를 의미가 같은 말로 풀이하고 있다.

18) ‘새-’는 16세기 국어에서는 명사, 부사, 관형사 등으로 쓰였으며 ‘새(新)’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요즈음은 강세의 뜻으로 사용된다. 손용주(1997:62)

19) 송정근(2007:74) 참조.

영다:새하얇다, 시꺼멓다:새까맣다, 시커멓다:새카맣다'처럼 모든 색채 계열에 정연한 모음대립쌍이 이루어져 있는 데에 비해, '싯-'은 '빨강다, 허엿다, 꺼멓다, 커멓다' 앞에 붙지 못하고 '쌿-'은 '카맣다'에 붙지 못한다. 이런 형태, 의미상의 유연성과 분포상의 차이를 감안하면 '쌿-/싯-'을 독자적인 접두사로 보기 어렵고 '시-/새-'의 변이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3.2 접미사에 의한 파생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접두파생어에 비해 수효가 훨씬 더 많을 뿐더러 구조도 매우 복잡하다. 특히 한국어의 파생어가 통시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형태소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시적으로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²⁰⁾. 가령 '해끄스름하다, 해읍스름하다, 해우스름하다'에서 '끄, 읍, 유'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으나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온 것인지 어떤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짹짹하다, 씹씹하다'의 '뉘' 받침은 '짜다, 쓰다'의 어원 형태인 '뿌다, 뿌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두번째 음절의 받침 자음 'ㄹ'의 정체는 밝혀내기 어렵다²¹⁾. 바우어(bauer 1983 : 19~20)는 어휘소를 구성 형태로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투명(transparent)'이라고 분석할 수 없으면 '불투명(opaque)'이라고 했다²²⁾. 그래서 '끄, 읍, 유'와 'ㄹ'처럼 파생력이 약하고 어떤 일관된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20) 송철의(1992 : 32)에서 "어기와 파생어와의 파생관계가 규칙적으로 예측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어휘화(語彙化)'라고 규정했다.

21) 박문섭(1986 : 133)에서 '보들보들/부들부들하다', '노글노글/누글누글하다' 중의 'ㄹ-ㄹ-'을 '자음 침용형태소'로 규정한다. 이외에 '어둑어둑하다' 중의 'ㄱ-ㄱ-', '포근포근하다, 매끈매끈하다' 중의 'ㄴ-ㄴ-', 그리고 '노릇노릇하다, 배릿배릿하다' 중의 'ㄷ-ㄷ-'이 있다.

22) 하치근(1988 : 28) 재인용

형태를 접사로 보기 어렵고²³⁾ 본고에서는 이들을 ‘불투명 형태’라 부르게 한다. 즉 파생력이 높으면서 일정한 뜻을 가지는 형태만 접사로 인정하고 그 형태와 의미를 고찰한다.

[도표 3]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어 색채, 미각형용사 접미사

접사		선행 형태	날말 분포	후행 형태
곰/굼/금/콤/쿰/큼	어근	달/*들	달곰/달굼/달콤/달쿰/달큼	하
		시/*새	시금/시굼/시킴/시쿰/새금/새굼/새콤/새큼	하
		*매	매콤	하
		*들	들큼	으레+하
		시/*새-	시금/시킴/새금/새큼	으레+하
앙/영	어근	*뵈/*뵈/*뵈/*뵈	발강/벌겅/뽕강/뽕겅	다
		*하이/*허이	하얗/허영	다
		누르/노르/*뇌르 /*뇌르	노랑/누렁, 뇌랑/뇌렁	다
		푸르/*파르/*파르르/*퍼르	파랗/파르랗/피렁/푸렁	다
		검/검/감/깜	가랑/거렁/까랑/꺼렁	다

접미사 ‘-곰/굼/금/콤/쿰/큼’은 다른 감각형용사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유독 미각형용사 ‘달다’, ‘시다’와 ‘맵다’ 계열에만 존재한다. 선행형태는 단일어 어근 ‘달-’, ‘시-’와 그 변이형(變異形)²⁴⁾ ‘*들-’, ‘*새-’ 그리고 어근 ‘맵-’의 변이형 ‘*매-’가 있고, 후행형태는 ‘들큼하다, 시금하다’처럼 접미사 ‘-하-’가 뒤따를 수도 있고 ‘들크무레하다, 시그무레하다’ 등처럼 ‘-으레+-하-’가 뒤따를 수도 있다. 그중 ‘시-/*새-’에 붙는 이

23) 하치근(1988: 27-8)에서 “뜻의 일관성과 파생력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파생 접사가 가진 일반적인 뜻을 밝히기 위해서는 ... 파생력이 높은 접사를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4)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 때 그것을 형태라 하고 한 형태소의 교체형들을 그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라 한다. (남기심, 고영근, 1987: 44)

접미사는 양성-중성-음성의 모음대립과 평음-격음의 자음대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곰/굼/금/콸/큼/큘-’ 형태가 모두 존재하는데 비해 ‘달-/*들-’에는 ‘-곰/금/콸/큼-’만 있고 음성모음을 가진 ‘-굼/큼-’ 형태가 없다. 그리고 ‘*매-’에 붙는 형태는 단 ‘-콸-’ 하나 뿐이다.

접미사 ‘-앙/엇-’²⁵⁾은 색채형용사에서만 발견하고 5개 하위 계열어군에 모두 존재한다. 선행형태는 단일어 어근인데 ‘붉다’, ‘희다’의 어근 ‘붉-’, ‘희-’에 붙지 않고 그들의 변이형에만 붙는다. 후행형태로는 어미 ‘-다’가 직접 붙으므로 접미사 ‘-앙/엇-’에 의해 파생된 것이 어간임을 알 수 있다. 이 특징은 ‘-앙/엇-’이 기원적으로 구문성을 강조하는 ‘-아/어 하다’ 형태²⁶⁾에서 유래되므로 다시 ‘-하-’와 결합하지 않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2) ㄱ. 달곰하다: 감칠맛이 있게 꽤 달다.

노랗다: 병아리나 개나리꽃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노르다.

이상 ‘달곰하다, 노랗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두 단어가 모두 맛의 농도나 색상의 채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관적으로도 ‘달곰하다>달보드레하다, 달짝

25) 접미사 ‘-앙/엇-’의 설정 문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다. 최길용(1991:437)는 ‘가맣다, 파랗다’를 단일어로 보며 ‘-앙/엇-’의 설정을 거부한다. 심재기(1982:40)는 ‘-앙/엇-’을 ‘-아/어+하-’의 축약형으로 보아 ‘-하-’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이상복 1992:75 재인용). 송철의(1992:111)는 “... ‘파랗다’ 등이 [[파르-]R+앙-]A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며 ‘-앙-/-엇-’을 접미사로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본고는 ‘-앙-/-엇-’이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더라도 공식적으로 명확한 형태와 의미를 갖추므로 이를 접미사로 처리해도 좋다고 본다.

26) 이현희(1985)는 통시적인 방법으로 ‘까맣다, 노랗다’와 같이 접사 ‘-앙/엇-’이 붙은 색채형용사는 기원적으로 구문성을 강조하는 ‘어간+아/어 하다’의 형태가 후대에 ‘빨갳다, 누렇다, 파랗다, 하얗다, 까맣다’ 등과 같은 어휘 차원으로 머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승애 1997:24 재인용)

지근하다’, ‘노랗다>노름하다, 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르스레하다’와 같은 정도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송철의 (1992 : 225)에서 “-엇-/엇-”은 ‘매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며 “(공간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접미사) ‘-다랗-’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접미사 ‘-곰-’의 의미에 대해 이경우(1981 : 238)는 그것이 화자의 주관이나 심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달콤한’의 표현은 화자가 이미 맛을 보아서 ‘달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가능한 표현이나 맛을 보지 않고는 그런 표현이 어색하다(예 : 너는 단 수박을 먹는다./?너는 달콤한 수박을 먹는다.). 그러나 이런 주관 심리 문제는 ‘달콤하다’ 뿐만 아니라 ‘달보드레하다, 달짝지근하다’ 등 다른 복합어도 모두 관계된 문제이고 접사 ‘-곰-’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도표 4]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어 색채, 미각형용사 접미사(1)

접사	선행 형태	날말 분포	후행 형태
-(으)ㄴ-	어근	붉-	발/불/벌/불/빨/빨/빨갓
		노르-	노릇/누릇
		푸르-	파랗/퍼랗/푸랗
		검-	가뭇/거뭇/까뭇/꺼뭇
	어근+ㄱ	희+ㄱ	희끗/해끗
-(으)ㄴ-	어근	노르-	노름/누름
		*떨-	떠름
	중첩어근	*떨떨-	떨떠름
	중첩어근+ㄱ	짹+ㄱ	짹짹/짹조름/짹찌름
		썹+ㄱ	썹썹/썹쓰름
	어근+ㄱ	희+ㄱ	희끔/해끔
-(으)름-	어근	붉-	발/불/벌/불/빨/빨/빨그름
-(으)레-	어근	붉-	발/불/벌/불/빨/빨/빨그레
		검-	가무레/거무레/까무레/꺼무레
	어근+접사	붉+음	발/불/벌/불그무레
		달+곰	달크무레

		시+금-	시그무레/시크무레/새그무레/새크무레	-하-
		노르+ㄱ-	노르무레/누르무레	-하-
		푸르+ㄱ-	파르무레/포르무레/퍼르무레/푸르무레	-하-
	어근+ㄷ	노르+ㄷ-	노르ㄷ레/누르ㄷ레	-하-
	어근+금	희+금-	희ㄷ무레/해ㄷ무레	-하-
-애/에-	중첩어근+ ㄹ	짹-	짹째/짹찌레	-하-
		쌈-	쌈째/쌈쓰레	-하-

이상 다섯 가지 접미사는 형태적으로는 모두 하나의 음소나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의미적으로는 아래 (3)와 같이 모두 ‘조금, 약간’의 정도를 나타낸다.

- (3) ㄱ. 불긋하다: =불그스름하다 (조금 붉다)
 ㄴ. 누름하다: =누르스름하다 (조금 누르다)
 ㄷ. 불그름하다: =불그스름하다 (조금 붉다)
 ㄹ. 불그레하다: 얇게 불그스름하다.
 ㅁ. 짹째하다: 좀 짹맛이나 냄새가 풍기다

접미사 ‘-(으)ㅅ-’은 색채형용사의 5개 하위부류에 모두 분포하고 어근의 모음, 자음 변이형태에 모두 붙을 수 있다. ‘-애/에-’는 미각형용사 ‘짜다’, ‘쓰다’ 계열에만 분포하고 중첩어근에 먼저 불투명 형태 ‘ㄹ’이 첨가된 다음 붙는다. ‘-(으)름-’의 분포는 극히 제한적이고 색채형용사 어근 ‘붉-’과 그 변이형에만 붙는다. ‘-(으)ㄱ-’과 ‘-(으)레-’는 미각과 색채감각 형용사에서 모두 발견됐다. ‘-(으)ㄱ-’은 미각형용사 ‘떫다, 짜다, 쓰다’ 계열과 색채형용사 ‘노르다, 희다’ 계열에 분포하고 ‘어근’, ‘중첩어근’, ‘중첩어근+ㄹ’, ‘어근+ㄷ’ 등 각종 구조에 붙는다. ‘-(으)레-’는 색채형용사 어근 ‘검-, 붉-’과 ‘붉+음’, ‘노르+ㅁ’, ‘푸르+ㅁ’, ‘노르+ㄷ’,

‘희+끔’ 구조, 그리고 미각형용사 ‘달+끔’, ‘시+끔’ 구조에 붙는다.

그러나 이런 음소나 단음절로 되어 있는 형태를 접미사로 확정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음성언어인 한국어의 낱말들이 통시적 변화를 겪어 형태소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융합된 구조에서 한 음소나 음절을 추출하여 접미사로 설정하려면 형태변화를 덜 겪은 낱말들을 통해서만 유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형태소가 일정한 파생력을 가져야 그 형태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하치근(1988 : 27~28)에서 “뜻의 파악에 있어서 파생력이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뜻의 일관성과 파생력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곧, 접사가 파생력이 높으면 그 결과 파생되는 뜻의 결합은 일관성이 있다. (...) 따라서 파생접사가 가진 일반적인 뜻을 밝히고 의미 유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접사들의 파생력의 정도를 검증하여 파생력이 높은 접사를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박문섭(1986 : 133~4)에서 ‘노릇노릇하다, 파릇파릇하다, 비릿비릿하다’의 ‘-ㅅ-’를 ‘자음첨용형태소’로 처리했다. 그러나 ‘-ㅅ-’은 색채어 5종류의 어근에 모두 분포하고 첨어가 아닌 ‘발긋하다, 노릇하다, 푸릇하다’ 등에서도 분명히 분석해 낼 수 있다.

송정근(2007 : 67)는 ‘-(으)ㄴ-’을 접사²⁷⁾로 설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 ‘볼그름’을 고려하여 ‘노름’ 역시 ‘-(으)름-’을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볼그름’을 어근 변이형 *볼-에 ‘-(으)름-’이 결합된 구조로 분석할 수 있으나 ‘노름’의 구조는 ‘노-+름-’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어근 ‘노르-’에 접사 ‘-ㄴ-’이 붙은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직관에

27) 송정근(2007 : 35)에서 ‘-직-, -(으)스름-, -음-, -콤-, -막-’과 같이 복합어근을 형성하는 형태소를 ‘어근형성요소’라 부른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접사’ 개념과 비슷하다.

더 맞으며 미각형용사 ‘씹쓸하다 → 씹쓰름하다’, ‘짹짹하다 → 짹짜름하다’, ‘떨떨하다 → 떨떠름하다’의 분석에서도 형태소 ‘-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또 송정근(2007: 148)에서 ‘짹짜래/짹찌래, 씹싸래/씹쓰래’를 접사 ‘-레-’의 구조로 분석했다. 그러나 중첩형태 ‘짹짹/짹찹, *씹씹/씹쓸’을 고려하면 ‘-레-’를 받침자음 ‘ㄹ’에 ‘-에/애-’가 붙는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발/볼/벌/불/뺨/뺨/뺨/뺨그레-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접사 ‘-레-’는 모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짹짜래/짹찌래, 씹싸래/씹쓰래’의 ‘-레/레-’는 모음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접사 ‘-애/에-’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본다.

그리고 ‘가무레/거무레/까무레/꺼무레-하다’, ‘발/볼/벌/불그무레-하다’, ‘시그무레/시크무레/새그무레/새크무레-하다’ 등 낱말을 쉽게 ‘(그/크)무레’ 구조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이를 더 세분할 수 있을 듯하다. 가령 ‘거무레하다’를 ‘[[검- R/S+-으레- A]+-하- A]’, ‘불그무레하다’를 ‘[[[불- R/S+-음- A]+-으레- A]+-하- A]’, ‘시그무레하다’를 ‘[[[시- R/S+-금- A]+-으레- A]+-하- A]’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 (4) ㄱ. 불그레하다: [[불- R/S+-으레- A]+-하- A] → (형태) <얹게 불그스름하다> → (의미)

- ㄴ. 불그무레하다: [[[불- R/S+-음- A]+-으레- A]+-하- A] → (형태) <아주 얹게 불그스름하다> → (의미)

- (5) ㄱ. 시금하다: [[시- R/S+-금- A]+-하- A] → (형태) <맛이나 냄새 따

28) ‘-(으)ㄹ-’을 접사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정근(2007: 148)는 ‘씹쓰름하다, 짹찌름하다, 떨떠름하다’에서 접사 ‘-름-’을 분석해 낸다.

위가 깊은 맛이 있게 조금 시다> → (의미)

ㄴ. 시그무레하다: [[[시- R/S +-금- A]+-으레- A]+-하- A] → (형태) <깊은 맛이 있게 조금 신 듯하다> → (의미)

이상 (4) ‘불그레하다’와 ‘불그무레하다’의 형태분석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비교해 보면 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음-’과 ‘-으레-’가 연속하여 결합할 때 그 정도가 더 약해짐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5)의 ‘시그무레하다’처럼 접미사 ‘-금-’에 ‘-으레-’가 더 붙으면 신맛이 더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무레’를 더 세분해야 ‘레’와 ‘무레’, ‘금’과 ‘그무레’의 형태·의미적 연관성을 찾아내고 ‘불그레하다-불그무레하다’, ‘시금하다-시그무레하다’를 연관시켜 그들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도표 5]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어 색채, 미각형용사 접미사(2)

접사	선행 형태		날말 분포	후행 형태
-(으)스름-	어근	붉-	발/불/벌/불/빨/빨/빨/빨그스름	-하-
		노르-	노르스름/누르스름	-하-
		푸르-	파르/포르/퍼르/푸르스름	-하-
		검-	가무스름/거무스름/까무스름/꺼무스름	-하-
		*하이/*허이-	하야/허여스름	-하-
	어근+ㄷ /읍/유	희+ㄷ-	희끄스름/해끄스름	-하-
		희+읍-	희읍스름/해읍스름	-하-
		희+유-	희유스름/해유스름	-하-
-(으)스레-	어근	붉-	발/불/벌/불/빨/빨/빨/빨그스레	-하-
		노르-	노르스레/누르스레	-하-
		푸르-	파르스레/퍼르스레/푸르스레	-하-
		검-	가무스레/거무스레/까무스레/꺼무스레	-하-
		*하이/*허이-	하야스레/허여스레	-하-
	어근+읍	희+읍-	희읍스레/해읍스레	-하-

-작/쩍/작/ 척지근-	어근	달-	달짝지근/달착지근/들쩍지근/들척지근	-하-
		시-	시척지근/새척지근	-하-

이상 3 접사도 ‘조금, 약간’의 정도성을 나타낸다. ‘-스름-’, ‘-스레-’는 앞에서 보인 ‘-(으)ㅅ-’과 함께 한국어 색채형용사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접미사이고 ‘붉다’, ‘노르다’, ‘푸르다’, ‘검다’, ‘희다’ 계열에 모두 분포되어 있다. 다만 이 두 접사는 어근 ‘희-’에 직접 결합할 수 없고 변이형 ‘*하이/*허이-’나 ‘희끄, 희읍, 희윽’ 구조에 붙는다. ‘-작/쩍/작/척지근-’은 미각형용사 ‘달다’, ‘시다’ 계열에만 분포한다.

송정근(2007: 65~67)에서 ‘-(으)스름-’과 ‘-(으)스레-’를 다시 ‘-(으)ㅅ-’와 ‘-름-’, ‘-레-’의 결합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불그스름/스레, 노르스름/스레, 거무스름/스레, 푸르스름/스레’를 ‘불긋+으름/으레, 노릇+으름/으레, 거뭇+으름/으레, 푸릇+으름/으레’의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불긋하다’와 ‘불그스레하다’의 의미를 모두 ‘불그스름하다’로 풀이하는 것 보면 그들이 의미가 비슷함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얗/허여스름하다, 하얗/허여스레하다’에서 ‘하얗/허여’의 형태를 상정하기 어렵고 또 공간형용사인 ‘얕브스름하다, 가느스름하다’와 ‘가느스레하다, 구부스레하다, 길쭉스레하다, 납작스레하다’ 등 낱말 구조에서도 ‘-스름’, ‘-스레’를 다시 세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시적 입장에서 ‘-(으)스름-’과 ‘-(으)스레-’를 독자적인 접사로 설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본다.

[도표 6] 낮은 정도외에 다른 의미를 첨가한 한국어 색채, 미각형용사 접미사

접사	선행 형태	낱말 분포	후행 형태
-(으)땡땡/땡땡/ 당당/땡땡/땡땡-	어근 붉-	발그땡땡/불그땡땡/벌그땡땡/불그땡땡/빨그땡땡/ 뿔그땡땡	-하-
	노르-	노르땡땡/누르땡땡/누르땡땡	-하-

		푸르-	파르당당/파르당당/포르당당/피르당당/푸르당당/ 푸르당당/푸르당당	-하-
		검-	가무당당/거무당당/까무당당/꺼무당당	-하-
-(으)속속/속속-	어근	불-	발그속속/불그속속/별그속속/불그속속	-하-
		검-	가무속속/거무속속/까무속속/꺼무속속	-하-
		푸르-	파르속속/푸르속속	-하-
-(으)족족/족족-	어근	불-	발그족족/불그족족/별그족족/불그족족/빨그족족/ 빨그족족/빨그족족/빨그족족	-하-
		노르-	노르족족/누르족족	-하-
		푸르-	파르족족/포르족족/피르족족/푸르족족	-하-
		검-	가무족족/거무족족/까무족족/꺼무족족	-하-
-(으)잡잡/잡잡-	어근	검-	가마잡잡/가무잡잡/거무잡잡/까무잡잡/꺼무잡잡	-하-

이상 접미사들은 모두 음절이 중첩된 형태이고 낮은 정도의 정도성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더 부여한다. 접미사 ‘-(으)당당/당당-’과 ‘-(으)족족/족족-’은 ‘희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색채형용사 계열의 어근 ‘누르-, 불-, 푸르-, 검-’과 그들의 어근 변이형에 붙는다. ‘불다’, ‘검다’ 계열에 ‘-당당/당당-’은 ‘ㄴ : ㄴ’의 모음 짝만 이루어지는 데에 비해, ‘누르다’ 계열에는 ‘딩딩’, ‘푸르다’ 계열에는 ‘당당/딩딩/딩딩’의 모음변화 형태가 더 존재한다. 이에 비해 접미사 ‘-(으)족족/족족-’은 4개 계열에서 모두 ‘ㄴ : ㄷ’의 모음대립만 성립되고 다른 모음 형태가 없다.

(6) 거무당당하다: <고르지 않게 가무스름하다>

파르당당하다: <고르지 아니하게 파르스름하다>

(7) 거무족족하다: <칙칙하고 고르지 않게 가무스름하다>

파르족족하다: <칙칙하고 고르지 아니하게 파르스름하다>

이상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통해 접미사 ‘-당당/당당-’은 약한

정도 외에 “고르지 않음”, ‘-(으)죽죽/죽죽-’은 “칙칙하고 고르지 않음”을 더 첨가함을 알 수 있다. 송정근(2007: 69)에서 ‘희-’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와는 기본적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접사와 결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사 ‘-(으)잡잡/접접-’은 색채형용사 ‘검다’ 계열에만 발견하였다. “가무잡잡하다: <약간 질게 가무스름하다>”의 뜻풀이를 보면 ‘-(으)잡잡/접접-’가 ‘-(으)ㅅ-, -(으)레-, -(으)스름-, -(으)스레-’보다 정도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도성 의미 외에 이승명(1993: 309)은 ‘-잡잡-/접접-’이 밝지 못하다([-明][-純])는 의미를 첨가한다고 지적했고 하치근(1988: 41)은 이 접사가 얼굴 색깔 곧 <인상>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접미사 ‘-(으)속속/속속-’은 색채형용사 중 어근 ‘붉-, ‘푸르-, ‘검/검/검/검-’과 그들의 변이형에 붙는다. 여기 주의해야 할 점은 ‘푸르속속: 파르속속’, ‘불그속속: 발그속속’에서 ‘-속속/속속-’이 모음대립 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다’ 계열에서는 ‘가무속속: 거무속속’처럼 어근이 양성모음이든 음성모음이든 ‘속속’의 형태만 취한다. 또 그들의 의미를 보면 아래 (8)처럼 ‘불그속속하다, 거무속속하다’는 “수수하고 정도가 적당함”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에 반해, ‘푸르속속하다’는 ‘푸르죽죽하다’와 같이 “칙칙하고 고르지 않음”의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8) 불그속속하다: <수수하고 걸맞게 불그스름하다.>

거무속속하다: <수수하고 알맞게 검다.>

푸르속속하다: <↔ 푸르죽죽하다>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접사 파생 구조가 훨씬 간단한

편이다. 중국어 파생어는 거의 다 [어근+접사]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접사의 선행형태나 후행형태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국어 감각형용사에는 ‘*들-, *새-, *밖-, *파르-’와 같은 어근 변이형이나 ‘읍, 끄, 유’와 같은 불투명한 요소가 없다. 또 ‘-음+-으레- → 무레’처럼 접사가 연이어 결합하는 경우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 2절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접사를 설정하는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품사 유형을 명시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는 엄격한 접사 기준에 따르면 중국어 감각형용사에 ‘溫乎, 熱乎’, ‘黑巴巴’ 등 몇 개의 파생어만 존재하고 그 수효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래 다룰 ‘絲絲, 津津, 溜溜’ 등 접미사는 거의 다 넓은 의미의 준접사²⁹⁾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접미사의 형태와 분포 양상을 분석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呂叔湘(1999 : 716~720)에서 중국어의 ‘BB’형 접사의 사용은 습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접사를 달리 사용하거나 심지어 어떤때 말을 더 생동하게 표현하기 위해 없던 중첩형을 새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 감각형용사에서 분석된 접사들의 분포 양상은 한국어에 비해 많이 산만하고 흩어진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낱말 ‘酸嘖嘖, 軟嘖嘖’만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恬嘖嘖, 苦嘖嘖, 咸嘖嘖’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중국어에서 ‘BB’형 접사를 발음이 비슷한 다른 한자로 적는 경우가 많다. 가령 ‘酸嘖嘖 : 酸唧唧’, ‘美滋滋 : 美孜孜’, ‘黑糊糊 : 黑忽忽 : 黑乎乎’처럼 동일한 접사를 다른 글자로 표기하는 일이 많다. 의미의 추상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글자

29) 陳光磊(2001 : 56)에서 의미기능에 따라 이런 중첩접사를 ‘생동접사(生動后綴)’라 부르기도 한다.

혼용 현상은 오히려 이런 중첩형들이 본디 뜻이 점점 사라지고 추상화되어 가고 있음을 입증한다.

[도표 7] 중국어 색채, 미각형용사의 'BB'형 접미사

접사	분포 양상
兮兮(希希)	黃兮兮, 綠兮兮, 藍兮兮, 紅兮兮, 黑兮兮
巴巴	黑巴巴, 黃巴巴
乎乎(忽忽/呼呼/糊糊)	辣乎乎, 黑糊糊, 黃忽忽, 白乎乎
涔涔	苦涔涔
怏怏(厭厭/艷艷/淹淹)	苦怏怏, 黃怏怏
噁噁(唧唧/擠擠/齋齋)	酸噁噁
津津(浸浸)	恬津津, 咸津津, 苦津津, 黑津津
迷迷(咪咪)	恬迷迷
滋滋	恬滋滋, 黑滋滋
絲絲	恬絲絲, 苦絲絲, 涼絲絲, 冷絲絲, 咸絲絲
溜溜	酸溜溜, 苦溜溜, 黑溜溜
潦潦(了了/寥寥)	白潦潦(白了了/白寥寥)
辣辣(刺刺)	澀刺刺
糝糝	黑糝糝, 黃糝糝, 白糝糝
扑扑	黑扑扑, 白扑扑, 灰扑扑, 紅扑扑
通通	紅通通
噴噴	紅噴噴
生生	綠生生, 黑生生, 白生生
沉沉	綠沉沉, 黑沉沉
幽幽(悠悠)	藍幽幽, 黑幽幽
瓦瓦	白瓦瓦
幢幢	黑幢幢
槎槎(楂楂)	黑槎槎(黑楂楂), 白楂楂
頓頓	黑頓頓
簇簇	黑簇簇
騰騰	黑騰騰
泠泠	白泠泠
洞洞	黑洞洞

馥馥	紅馥馥
澄澄(橙橙)	紅澄澄, 黃澄澄
汪汪	藍汪汪
茸茸	黑茸茸, 綠茸茸
氍氍	黑氍氍
花花	白花花
凜凜	黑凜凜
熾熾	白熾熾
漫漫	黑漫漫
越越	黑越越
蒙蒙	黑蒙蒙, 白蒙蒙
茫茫	黑茫茫, 白茫茫
隆隆	黑隆隆
疹疹	黑疹疹, 白疹疹
厲厲	白厲厲
森森	綠森森, 白森森, 黑森森
晃晃	白晃晃
麻麻	黑麻麻
壓壓(鴉鴉)	黑壓壓(鴉鴉)

이상 접미사들은 모두 2음절 중첩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접미사들이 파생능력과 의미 기능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들 접미사들의 분포양상과 파생능력을 살펴보면 ‘兮兮, 絲絲, 津津, 溜溜’ 등 접미사들은 여러 감각영역의 어근에 결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파생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花花, 晃晃, 刺刺, 噉噉’ 등은 파생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³⁰⁾.

30) 이런 접미사들이 전혀 파생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고의 고찰 대상인 미각·색채 형용사 외에 ‘明晃晃, 亮花花, 熱刺刺, 軟噉噉’ 등 다른 형용사에서 그들의 분포를 확인

또 그들이 첨가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주로 정도가 높고 낮음을 나타낸 한국어 접미사들과 달리, 중국어의 중첩형 접미사들은 주로 생동감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 외에 일부 접미사는 정도성 의미를, 일부 접미사는 말한이의 선호도 즉 쾌감 여부³¹⁾를, 또 일부 접미사는 [+밝음], [+맑음], [+거칠], [+무서움], [+공간 넓음] 등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9) ㄱ. 絲絲(恬絲絲, 苦絲絲): [정도 低][?쾌감]

ㄴ. 扑扑(黑扑扑, 白扑扑, 灰扑扑, 紅扑扑): [정도 高][?쾌감]

(10) ㄱ. 兮兮(黃兮兮, 綠兮兮, 藍兮兮): [정도 低][-쾌감]

ㄴ. 滋滋(恬滋滋, 黑滋滋): [정도 低][+쾌감]

(11) ㄱ. 茫茫(黑茫茫, 白茫茫): [?정도][?쾌감][공간 넓음]

ㄴ. 幽幽(藍幽幽, 黑幽幽): [?정도][?쾌감][그윽함]

이상처럼 중국어 중첩형 접미사들이 표현을 생동하게 하면서 정도, 쾌감 등 다른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9)의 ‘絲絲, 扑扑’는 주로 정도성

할 수 있다.

31) 그러나 [+쾌감]의 의미가 도대체 그 접사에 의해 드러난 것인가 아니면 그 감각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기호에 의한 것인가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가령 접사 ‘兮兮’가 붙은 ‘黃兮兮, 綠兮兮, 藍兮兮, 紅兮兮, 黑兮兮’는 인간이 그 색깔을 좋아하든 말든 다 ‘산뜻하지 않다’는 불쾌감을 나타낸다. 반대로 접사 ‘滋滋’가 들어있는 ‘恬滋滋, 黑滋滋’는 단맛, 검은색에 대한 선호 여부를 떠나 공통적으로 쾌감을 드러낸다. 즉 붉은 색을 좋아해도 ‘紅兮兮’라고 하면 지저분하고 산뜻하지 못한 붉은 색을 연상시키고, 검은 색을 싫어해도 ‘黑滋滋’라고 하면 보기 좋은 검은색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恬絲絲’와 ‘苦絲絲’는 각각 쾌감과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접사 ‘絲絲’와 무관하고 단맛을 선호하고 쓴맛을 거부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취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 ‘酸溜溜, 苦溜溜’가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黑溜溜’는 특별히 언짢은 느낌을 주지 않고 ‘一双黑溜溜的大眼睛’처럼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의미를 나타내고 (10)의 ‘兮兮, 滋滋’는 정도성 의미 외에 각각 비호감과 호감의 의미를 더 나타내며, (11)의 ‘茫茫, 幽幽’는 정도, 쾌감보다 각각 [공간 넓음]과 [그윽함]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의미의 추상화 정도에 있어서도 각 접미사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兮兮, 巴巴, 乎乎, 津津, 溜溜’ 등 접사들은 이미 글자의 본디 뜻이 상당히 사라진 데에 비해, ‘茫茫, 幽幽, 森森, 厲厲, 簇簇, 燦燦’ 등 접미사들은 본디 뜻이 덜 사라지고 ‘黑森森, 白厲厲’의 ‘森, 厲’를 통해 [무서움], ‘黑簇簇’의 ‘簇’를 통해 [수량이 많음], ‘黑漫漫, 黑茫茫, 黑蒙蒙’의 ‘漫, 茫, 蒙’를 통해 [공간이 넓음], ‘紅燦燦, 黃燦燦’의 ‘燦’를 통해 [빛남]의 뜻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어의 파생접미사들이 모두 독립적 단어로부터 변해왔으나 어떤 것은 접사화가 더 되고 어떤 것은 접사화가 덜 되어 접사화 정도가 각각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추상해질수록 파생력이 강할수록 접사화 과정이 더 진행됨을 의미한다.

[도표 9] 중국어 색채, 미각형용사의 ‘不XX’, ‘了呱咧’, ‘咕隆冬’형 접미사

접사	분포 양상
不絲	恬不絲
不唧儿	恬不唧儿, 苦不唧儿, 辣不唧儿
不吡咧	白不吡咧
不溜秋(球/餡/揪)	黑不溜秋
不溜(溜/丟)	黑不溜, 灰不溜丟, 酸不溜丟
不棱登(楞登/愣登)	紅不棱登
咕隆咚(咕嚕冬/咕籠咚)	黑咕隆咚(黑咕嚕冬/黑咕籠咚)

이상 ‘不XX’³²⁾, ‘了呱咧’, ‘咕隆冬’형 접미사들은 정도성 의미보다 주

32) 任學良(1981:52)에서 ‘不’를 접요사(接腰辭)로 처리하는데 본고는 ‘不XX’ 전체를 하나의 접미사로 처리한다.

로 [-쾌감], 즉 어떤 감각이 말한이의 기호에 맞지 않다는 뜻을 나타낸다.

4. 나오기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파생법은 한중 감각형용사 형성에서 다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접사의 유형과 의미 기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 감각형용사 파생어의 형태구조가 아주 복잡한 데에 비해 중국어는 훨씬 더 간단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 ‘시-/씻-, 새-/씻-, 감-’ 등 접두사에 의한 파생이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이런 접두사에 의한 파생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한국어에 ‘-음+-으레- → 무례’, ‘-کم+-으레- → 크무례’처럼 접미사가 연이어 결합하는 현상이 있는데 중국어에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다. 중국어 감각형용사 파생어는 거의 다 [어근 + ‘BB’형 중첩접미사] 혹은 [어근+‘不XX/了呱噦/咕隆冬’형 접미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감각의 객관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단일어에 첨가되어 감각의 구체적인 상태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것은 파생 접사의 의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감각형용사에서 분석된 접사들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정도성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씻)-’, ‘새(씻)-’, ‘곰/굶/굶/굶/굶-’, ‘-앙-/어-’, ‘-스름-’, ‘-스레-’ 등 대부분의 접사들은 높거나 낮은 정도성 의미를 나타내며, ‘-(으)맹맹/맹맹/당당/덩덩/덩덩-’, ‘-(으)속속/속속-’, ‘-(으)죽죽/죽죽-’, ‘-잡잡/접접-’ 등 일부 접사들은 낮은 정도를 나타내면서 [고르지 않음], [칙칙함], [밝지 않음] 등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중국어의 접미사들은 모두 생동감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생동감 의미외에 ‘絲絲, 扑扑’ 등 일부 접미사는

정도성 의미를, ‘不XX’, ‘了呱噤’, ‘咕隆冬’ 등 일부 접미사는 말한이의 선호도 즉 쾌감 여부를, 또 ‘茫茫, 漫漫’, ‘森森, 厲厲’, ‘簇簇’, ‘燦燦’ 등 일부 접미사는 [(공간) 넓음], [무서움], [수량이 많음], [빛남] 등 다른 의미를 더 부여하기도 한다.

한중 감각형용사 파생어의 형태,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다. 우선 한국어는 표음문자(表音文字)로서 통시적 변화를 겪으면서 형태소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시적으로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령 ‘해끄스름하다, 해읍스름하다, 해우스름하다’ 중의 ‘끄, 읍, 유’, 그리고 ‘짹짹하다, 씹씹하다’ 중의 ‘ㄹ’의 정체와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통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어는 표의문자(表義文字)로서 형태소들의 통시적 형태 변화가 한국어만큼 심하지 않으며 형태소간의 경계가 뚜렷하다. 그러나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의미 분석에는 접사의 개념과 접사를 설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품사 유형을 명시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는 좁은 의미의 접사 개념과, 접사와 어근 사이에 처해 있는 ‘준접사(准詞綴)’도 접사로 인정하는 넓은 의미의 접사 개념이 있는데 본고에서 분석한 ‘BB’형 중첩 접미사와 ‘不XX’형 접미사들은 거의 다 준접사에 속한다. 그리고 준접사에 ‘兮兮, 溜溜, 津津’ 등처럼 본디 뜻이 상당히 사라지고 높은 파생력을 가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森森, 厲厲, 麻麻, 簇簇’ 등처럼 본디 뜻이 덜 사라지고 파생력이 약한 것들도 있다. 또 중국어의 접사 사용은 습관에 달려 있고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접사를 달리 사용하거나 심지어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중국어 준접사의 수효는 많으나 그 분포양상은 산란해 보이며 일정한 규칙을 찾기 어렵다.

[참고문헌]

- 강보유, 『빛갈형용사의 형상적의미구조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6호, 1989.
 —, 『빛갈형용사의 결합적 특성』, 『중국조선어문』 제2호, 1990.
 —, 『빛갈형용사의 색채학적 의미구조의 특성』, 慶熙알타이어研究所, 1994.
 강은국, 『현대조선어』, 중국: 연변대학출판사, 1987.
 권주예, 『국어의 감각 동사연구』, 『국어국문학 논문집』 13, 서울대학교, 1982.
 구본관, 『국어파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8, 1993.
 —,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김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1판1쇄, 1993.
 김복년, 『현대 중국어의 색채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찬화, 『한중 감각형용사 의미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총서21(국어학회), 서울: 태학사, 초판 1쇄, 1996.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7.
 박문섭, 『우리말 形容詞의 感覺語 研究』, 『語文論集』 20, 1986.
 박선우, 『현대 국어의 색채어에 대한 연구 -색채형용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손경호, 『韓日 兩言語의 味覺語 考察 -基本 味覺形容詞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 研究』 62, 2007.
 손용주, 『감각형용사의 분류 체계』, 『대구어문론총』 10,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2.
 —, 『우리말 색상어 접두사 <새/셋/시/삿>에 대하여』, 『계명어문학』 제10집, 1997.
 —, 『국어어휘론 연구방법』, 문창사, 1999.
 송정근,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송철의, 『파생어형성에 있어서의 제약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1988.
 —, 『국어의 파생어 형성연구』, 서울: 태학사, 1992.
 신순자, 『형용사의 형태 구조적 특성』, 『어문논집』 7, 1997.
 우형식·배도용, 『한국어 어휘의 이해』,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안상철, 『형태론』, 서울: 민음사, 1998.
 이경우,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의미변화』, 『국어교육』 39, 40, 1981.
 이병근,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6.
 이상복, 『국어 조어법 연구』, 『한글』 215, 1992.
 이석주·이주행, 『국어학개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판2쇄, 1997.

- 이승명, 「국어 색상어의 연구」, 『홍익어문』 10, 11, 홍익대학교, 1992a.
- 이승명, 「국어 색상 표시어군」, 『어문론총』 26, 경북어문학회, 1992b.
- 이승명, 「국어 색상 표시어군의 구조에 대한 연구」, 『어문학』 54, 1993.
- 이익섭,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1975.
- _____,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진애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각 형용사 고찰」,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최길용, 「현대 한국어 형용사의 형태구조 분석」, 『京畿語文學』 9, 1991.
- 하치근, 「국어 파생접미사의 유형 분류」, 『한글』 188, 1988.
- 陳光磊, 『漢語詞法論』, 上海: 學林出版社, 2판2쇄, 2001.
- 蔣宗許, 『漢語詞綴研究』, 四川: 四川出版集團巴蜀書社, 2009.
- 金容勛, 『中韓色彩語比較研究』, 山東大學碩士論文, 2009.
- 高名凱, 『漢語語法論』, 北京: 商務印書館, 1957/1986.
- 郭紹虞, 「中國詩歌中的雙聲疊韻」, 『照隅室語言文字論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34/1985.
- 廖庶謙, 『口語文法』, 北京: 三聯書店, 1946.
-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 北京: 商務印書館, 1979.
- _____,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99.
- 任學良, 『漢語造詞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 潘文國·叶步青·韓洋, 『漢語的構詞法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4.
- 朴鎮秀, 「現代漢語形容詞的量研究」, 夏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 瞿秋白, 「新中國文草案」, 『瞿秋白文集』第二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32/1957.
- 王力, 『中國文法學初探』, 上海: 商務印書館, 1936.
- 徐銀春, 「朝漢顏色詞對比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5.
- 元傳軍, 「現代漢語形容詞重疊式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2.
- 張拱貴·王聚元, 『漢語疊音詞詞典』,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7.
- 張國憲, 『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6.
- 鄭鳳然, 「漢韓語顏色詞的異同」, 『畢節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18卷第3期, 2000.

〈중국어초록〉

人們通過各種詞匯、語法及修辭手段來表達自身豐富的感覺體驗。其中，派生、合成以及語音替換等造詞法作為一種詞匯手段，可以構成許多互相近似但又相互區別的近義詞，它們具有細微的語義差異，能夠表達各種細膩的感覺。

派生法在中韓感覺形容詞的形成中發揮着十分重要的作用。單純詞表現的是感覺的客觀屬性，而派生詞通過在單純詞的基礎上添加前綴或後綴，表現出感覺的某種具體狀態以及說話人的主觀性判斷。添加詞綴主要賦予某種程度量的語義，除此之外還可以添加[±快感][±明亮][±清澈][±粗糙][±可怕]等多種語義。

本文試圖對中韓味覺形容詞和色彩形容詞中的派生詞進行形態分析和比較。第二章中將對中韓感覺形容詞的構詞類型及語素類型進行分類，並對漢語的‘詞綴’、‘准詞綴’概念及其判斷標準進行探討；第三章中將區分前綴與後綴，對各個詞綴的分布情況及其語義功能進行考察。通過這些形態及語義方面的分析考察，對於揭示中韓感覺形容詞派生法的不同特征，以及眾多近義詞之間的細微語義差別，將起到十分積極的作用。

關鍵詞：中韓感覺形容詞，味覺形容詞，色彩形容詞，前綴，後綴，准詞綴，形態結構，分布情況，語義功能。

논문접수일: 2011.11.30	심사기간: 2011.12.05~12.30	게재결정일: 2012.01.09
-------------------	------------------------	-------------------